

KOSDAQ | 제약과생물공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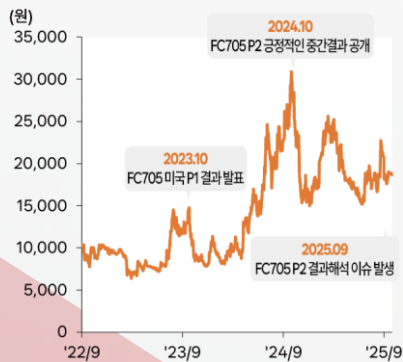
퓨처켄 (220100)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의 Fa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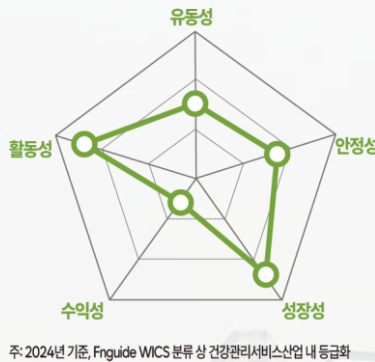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PSMA 기반 전립선암 테라노스틱스(진단+치료) 라인업: 전립선암 진단제 'FC303'과 치료제 'FC705'를 동시 개발 중이며, 글로벌 임상 진전 가속화로 구조적 성장 기반 확보
- 기존 방사성 진단의약품 사업의 안정적 성장 지속: FDG, FP-CIT 등 기존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매출이 꾸준히 확대되며, 고정비 흡수 및 손익 개선에 기여
- 2026년 신약 허가 및 기술이전(L/O) 가시화 구간 진입 전망: 'FC303' 국내 허가 및 'FC705' 조건부 허가 기대,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및 밸류 리레이팅(Re-rating) 모멘텀 본격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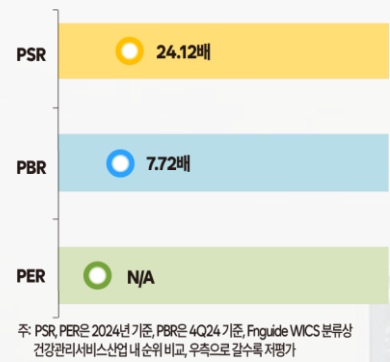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퓨처켄 (220100)

Analyst 김승준, PharmD edwardsj@kirs.or.kr

RA 박규연 park.gyuyeon@kirs.or.kr

KOSDAQ

제약과생물공학

전립선암 테라노스틱스 선도 기업

퓨처켄은 국내 최초로 방사성 리간드 신약 기술을 확보한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으로, 진단과 치료를 아우르는 PSMA(전립선특이막항원) 기반 테라노스틱스를 목표로하며 성장 중. 주요 제품으로 파킨슨병 진단제 '피디뷰'와 알츠하이머 진단제 '알자뷰'를 상용화하였으며, 현재 전립선암 진단제 'FC303'과 치료제 'FC705'를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개발하며 허가 및 late stage 임상 돌입.

전립선암 진단&치료 임상 가속화, 2026년부터 신약 가치 반영 구간 진입

전립선암 진단제 'FC303'과 치료제 'FC705'는 글로벌 주요 제품인 'Pylarify'(Lantheus)와 'Pluvicto'(Novartis)를 타겟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L/O 및 병행 허가 가능성 기대. 중장기적으로는 'FC303'의 2026년 국내 품목허가 및 2027년 중국 허가, 'FC705'의 2026년 조 건부 허가 및 글로벌 임상 결과 확인이 예상되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L/O 및 수익성 개선 모멘텀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동시에 국내외에서 PET 기반 방사성 진단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매출의 안정적인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2025년은 도약 전 준비기, 2026년 신약 모멘텀 반영 기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84억 원(+6.4% YoY), 영업손실은 88억 원으로 전망. 기존 방사성 진단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와 신규 병원 거래처 증가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판매비 및 연구개발비 효율화로 적자 폭은 전년 대비 소폭 축소될 전망. 핵심 파이프라인의 본격적인 매출 기여는 2026년 상반기 이후로 예상되나, 2025년은 허가 신청 및 글로벌 임상 진전이 병행되는 과도기적 해로, 중장기 성장 기반이 강화되는 시기로 임상 성과 및 허가 승인 가시화 시점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Re-rating)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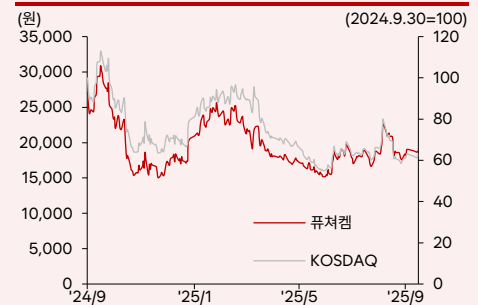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억원)	118	126	140	173	184
YoY(%)	7.3	6.4	11.1	23.8	6.4
영업이익(억원)	-79	-129	-84	-95	-88
OP 마진(%)	-66.8	-102.9	-60.2	-54.7	-47.7
지배주주순이익(억원)	-34	-140	-67	-94	-42
EPS(원)	-178	-703	-304	-424	-189
YoY(%)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배)	N/A	N/A	N/A	N/A	N/A
PSR(배)	21.8	15.2	16.7	22.2	22.9
EV/EBITDA(배)	N/A	N/A	N/A	N/A	N/A
PBR(배)	4.9	3.0	3.7	7.1	8.4
ROE(%)	-7.1	-22.7	-10.0	-15.9	-8.1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0/14)	18,800원
52주 최고가	30,900원
52주 최저가	15,020원
KOSDAQ (10/14)	847.96p
자본금	111억원
시가총액	4,155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22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44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90억원
외국인지분율	170%
주요주주	지대윤 외 11 인
	14.44%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0.0	-15.5	-36.1
상대주가	-10.1	-29.4	-41.9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매출총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 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기업 개요 및 연혁

국내 최초 방사성 리간드 신약 기술을 보유한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으로, 진단 및 치료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도약을 준비 중

퓨처켄은 2001년 8월 13일 설립된 방사성 리간드 진단제 전문기업으로, 2016년 12월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였다. 당사는 특정 질병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단백질과 유사한 펩타이드 화합물에 방사성동위원소를 표지 (Labeling)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사성의약품(radiopharmaceuticals) 신약 개발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퓨처켄은 국내에서 최초로 방사성의약품용 펩타이드 제조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병소 선택성을 높이는 고정밀 라벨링 (Labeling) 기술과 펩타이드 구조 최적화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외 임상 및 글로벌 기술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2008년 4월 세계 최초로 폐암 진단용 $[^{18}\text{F}]\text{FLT}$ 와 2008년 5월 파킨슨병 진단용 '피디뷰'($[^{18}\text{F}]\text{FP-CIT}$)를 상용화한 데 이어, 2018년 12월 국내 29번째 신약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알자뷰'($[^{18}\text{F}]\text{Florapronol}$)의 품목허가를 취득 하였다. 또한 현재 파이프 라인 확대를 위해 전립선암 진단제 'FC303', 전립선암 치료제 'FC705'를 임상 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뇌종양을 기전으로 하는 F-FMT, 동맥경화를 기전으로 하고 Apoptosis를 타겟으로 하는 'FC505', 알츠하이머를 기전으로 하고 Tau Proteins를 타겟으로 하는 'FC211'이 임상0상 및 전임상 단계에 있다. 이들 제품은 모두 방사성동위원소 Fluorine-18, Lutetium-177, Actinium-225 등을 기반으로 하는 방사성 리간드 플랫폼에서 파생된 것이다.

전립선암 진단제 'FC303'은 국내 임상3상(서울성모병원 등 5개 기관, 398명 대상)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수령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내 품목허가를 추진 중이며, 미국에서는 임상 1상을 완료하고, 유럽 및 중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 중국에서는 파트너사 HTA社가 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에 임상3상 IND(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를 신청하였으며, HTA는 국내와 미국에서의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1상과 2상을 생략하고 바로 중국 NMPA에 임상 3상을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다.

전립선암 치료제 'FC705'는 루테튬(Lu-177)을 표지한 Lu177-FC705 와 액티늄(Ac-225)을 표지한 Ac225-FC705 로 구성되어 있다. Lu177-FC705 는 2022년 5월 식약처로부터 임상2상 승인을 받아 현재 진행 중이며, 2023년 5월 미국 FDA 임상1상을 완료하고 2a상을 수행 중이다. 2025년 9월에는 국내 임상3상 IND 승인을 획득하였다. Ac225-FC705 는 현재 비임상 단계에 있으며, 두 물질 모두 전립선특이막항원(PSMA)을 표적으로 하는 고정밀 표적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생산시설은 부산 기장 의과학산업단지 내 방사성의약품 GMP 공장으로, 2023년 4월 GMP 인증을 획득하였다. 2024년 기준 생산능력은 3,248,280 mCi, 가동률은 약 29.7% 수준으로 생산여력은 충분하다. GMP 생산공장을 활용한 CMO 매출 또한 발생하여,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의 4.4%를 차지한다. 전체 매출의 수출 비중은 2024년 기준 약 16.9%(14.1억 원) 수준이다.

2025년 반기 기준 임직원 수는 89명이며, 이 중 연구인력이 전체의 약 58%(52명)로 R&D 중심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박사 9명, 석사 21명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핵의학, 화학, 생명공학 분야의 융합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거

점은 서울 성수동 R&D센터와 부산 GMP센터이다. 동사는 이러한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진단용 방사성 리간드에서 치료용 방사성 리간드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파트너십과 기술이전을 통한 파이프라인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연혁

1999~2017	2018~2020	2021~
1999.11 퓨처켄 설립 (대표 지대운) 2001.08 주식회사 퓨처켄 법인전환 2002.12 벤처기업인증 - 기술보증기금 2003.03 (주)퓨처켄 표지화학연구소 설립(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7.12 Bayer Schering Pharma AG와 특허기술이전 및 공동연구계약 체결 2008.04 세계 최초 폐암진단용 [18F]FLT 식약처 신약허가 취득 2008.05 세계 최초 파킨슨병 진단용 [18F]FP-CIT 식약처 신약허가 취득 2009.01 [18F]FLT, [18F]FP-CIT 국내 생산 개시 2012.06 FC119S 임상0상 승인 및 임상1상 실시 2013.10 서울대병원 등 3개 병원과 방사성의약품 상용화 협력 협약 체결 2013.10 FC119S(알츠하이머 치매진단 방사성의약품) 임상1상 완료 2014.01 동아대학교병원 방사성의약품 상용화 협약 체결 2014.03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성의약품 상용화 협약 체결 2014.04 FC119S 임상3상 실시 2014.05 동남권 방사선 의 과학단지 입주 협약 2014.11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정읍) 업무 협약 체결 2015.03 ㈜에스메디 인수 2015.07 본사 성수동 이전(서울 성동구 연무장3길 21) 2015.07 한국원자력의학원 [18F]FP-CIT 전공정 위탁생산 2015.08 코넥스(KONEX) 상장 2015.09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화합물 미국 특허 취득 2015.12 동아대병원 생산시설 GMP 구축 계약 2016.06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FC119S 임상3상 종료 2016.07 니혼메디파직스 계열사 NMP社와 케미컬 제품 독점판매계약 2016.08 코스닥 상장 기술성 평가 통과(A등급) 2016.12 코스닥(KOSDAQ) 이전 상장 2017.02 부산 동아대병원 GMP 식약처 승인 획득 2017.07 글로벌스타벤처육성사업 선정(전립선 진단 방사성의약품 개발) 2017.07 FC303(전립선암 진단 방사성의약품) 후보물질 개발 2017.07 통합 R&D 센터 착공 2017.09 (주)카이헬스케어 인수	2018.01 퓨처켄헬스케어의 에스아이헬스케어 인수 2018.01 서울성모병원 GMP 적합성 승인 획득 2018.02 알자부주사액(Florapronol) 국내 품목허가 승인 완료 2018.03 FC705(전립선암 치료 방사성의약품) 후보물질 개발 2018.05 미국 법인 설립 2018.06 한국원자력의학원 전립선암 진단의약품 공동연구 협약 체결 2018.07 알자부 부산 동아대병원 생산 개시 2018.10 알자부 수도권 생산 개시(GMP 인증) 2018.12 알자부 타키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18.12 뇌종양 진단용 FMT 임상0상 완료 2018.12 sCUBE RXN, P&F module EU CE 인증 취득 2019.01 PSMA 표적 전립선암 진단용 FC303 임상0상 승인 2019.03 국제 테라노스틱스 학술회(제주)서 FC303-FC705 임상 결과 발표 2019.05 벨기에 Trasis社와 방사성의약품 협약 체결 2019.06 FC303 임상1상 신청 2019.06 美 콜롬비아대학과 피디부 임상계약 체결 2019.07 PSMA 표적 전립선암 진단 FC303 임상1상 승인(원자력병원) 2019.08 FC303 임상1상 승인(서울성모병원) 2019.12 GE헬스케어 FC303 공급계약 체결 2019.12 미국 Advanced Clinical社와 파킨슨 진단의약품 CRO 계약 2020.01 FC303 미국 FDA IND 승인 2020.01 PSMA 표적 전립선암 치료용 FC705 전임상 완료 2020.02 FC705 CRO 계약 체결 2020.02 FC303 미국 FDA 임상계획(IND) 신청 2020.03 FC705 제1상 임상시험 신청 2020.05 FC705 임상1상 승인 2020.05 오스트리아 IASON社와 FC303 유럽 라이선스 계약 2020.06 FC303 임상1상 종료 2020.07 IASON社와 파킨슨 진단의약품 기술수출 계약 2020.07 이대서울병원 알자부 GMP 승인 및 생산 개시 2020.09 FC303 중국 기술이전 계약(HTA社) 2020.10 제주대학교병원 피디부 전공정 위수탁계약 체결 2020.11 FC303 임상3상 계획 승인	2021.03 부산기장센터 착공 2021.04 FC705 美 임상1상 CRO 위탁계약 체결 2021.05 FC303 유럽 임상3상 승인(오스트리아 AGES) 2021.12 국가신약개발사업 정부과제 선정(전립선암 치료제) 2021.12 타키 Moltek社와 FC303 기술이전 계약(18개국) 2022.02 FC303 미국 임상1상 종료 2022.02 FC303 임상3상 시험 신청(IND) 2022.03 FC303 유럽 32개국 특허 취득 2022.04 AVID社와 임상용 의약품 공급 및 위탁 계약 체결 2022.04 FC705 미국 FDA 임상1/2a상 신청 2022.05 FC705 국내 2상 승인 2022.05 FC705 미국 FDA 임상1/2a상 임상시험계획 승인(FDA) 2022.06 부산기장센터 준공 2022.09 FC705 임상1상 결과 발표 2022.12 FC303 적응증 추가 임상3상 승인 2023.03 FC303 중국 임상3상 승인 2023.04 부산기장센터 GMP 적합성 승인 2023.04 FC705 중국 특허 취득 2023.04 FC705 중국 HTA와 Term Sheet 계약 체결 2023.05 FC705 美 임상1상 완료 2023.07 FC705 미국 임상2a상 개시 2023.12 FC705 미국 특허 등록 결정 2023.12 FC705 국가신약개발사업 10대 과제 선정 2024.03 FC705 美 특허 등록 2024.03 FC705 식약처 GIFT 품목 대상 지정 2024.07 FC705 식약처 화귀의약품 지정 2025.02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과제 선정

자료: 퓨처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사업

1. 전립선암 진단용 신약 파이프라인 - FC303 (프로스타뷰)

‘FC303’(프로스타뷰)은 PSMA 표적 결합 기반의 차세대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으로, 기존 영상기법 대비 우수한 특이성과 영상 품질을 확보했으며, 국내 임상 3상 완료 후 허가를 추진 중이고 중국, 미국, 유럽을 아우르는 다지역 임상 및 L/O을 통해 글로벌 Theranostics 시장 확장을 목표로

퓨처캠의 ‘FC303’은 차세대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으로, 전립선 특이막항원 PSMA(Prostate Specific Membrane Antigen)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Ligand에 양전자 방출 동위원소 Fluorine-18을 표지한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영상제다. 기존 CT(Computed Tomography,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와 같은 전통 영상기법은 작은 병변이나 원격 전이 병소 탐지에 한계가 있었으나, ‘FC303’은 PSMA 표적 결합을 기반으로 고 해상도의 분자영상이 가능해 **병기 설정 정확도 제고**와 **조기 전이 진단**에서 임상적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전립선 특이항원 PSA(Prostate Specific Antigen) 수치만으로는 구체적인 병변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FC303’은 종양 분포를 직관적으로 제시하여 환자 맞춤형 치료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FC303’은 전임상 단계에서도 경쟁 약물 대비 차별성을 입증한 바 있는데, 양전자방출 동위원소 18-F가 표지된 PSMA 결합물질로서, 생체 내 주입 시 전립선암에 선택적으로 축적되는 특징을 갖는다. 미국에서 개발된 전립선암 진단제 ‘Pylarify’(18F-DCFPyL[Piflutolastat])과 비교했을 때, ‘FC303’은 **비특이적 결합 및 정상장기 섭취가 현저히 낮아 보다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는 장점이 확인되었다. 마우스 모델 실험에서는 PSMA를 발현하는 전립선암 세포주와 비발현 세포주를 각각 이식한 누드마우스에 ‘FC303’을 주사한 후 촬영한 MicroPET/CT 영상에서, 종양에만 뚜렷하게 축적되고 정상 장기에서는 섭취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FC303’의 높은 특이성과 영상 품질 우수성을 입증하는 전임상 근거로 평가되었다.

또한 방사성의약품 신약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인 제조공정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방사성의약품은 2017년부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사는 자체 개발한 ‘sCUBE’ 자동합성장비를 활용해 고선량의 F-18 동위원소로부터 ‘FC303’을 자동합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반감기가 약 110 분에 불과한 F-18 표지 의약품 특성상, 환자 진단 직전에 생산하여 투여해야 하는데, 해당 장비를 통해 **균일한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졌고, 실제 10가지 품질검사 항목에 대한 테스트에서 모두 의약품 기준에 적합한 결과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FC303’의 임상 및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국내 개발 현황을 보면, ‘FC303’은 고위험군 및 재발성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시험에서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확보하며 주요 평가변수를 충족하여, 2025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제품명 ‘프로스타뷰’로 **2026년 상반기 내 허가**를 목표하고 있다. 허가 이후에는 기존 영상기법 대비 임상 진단 정확도의 질적 개선을 통해, 환자 선별, 치료 반응 평가, 재발 모니터링 등 다양한 임상 활용도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PSMA 표적 진단제는 단순 영상검사를 넘어, 향후 PSMA 표적 치료제와 연계된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 동일한 표적에 진단용과 치료용 동위원소를 각각 결합해 한 환자에게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제공)** 시장의 확장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 진단제 이상의 파급효과를 갖는 사업 영역으로, 동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해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진출 전략도 공격적으로 추진 중인데, 중국에서는 국영 제약사 HTA와의 License Out(L/O) Upfront: 130만 달

러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임상 3상**을 신속히 진행 중이며, 미국과 한국에서 확보한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1상&2상을 생략하고 바로 3상에 착수하였다. 중국 개발은 2026년 연말 임상3상 완료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유럽에서는 IASON GmbH(오스트리아)사에 L/O(Upfront: 15만 EUR) 후 **임상 3상도 병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지역 임상 전략은 규제당국별 허가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진입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특히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조기 안착은 글로벌 매출 성장에 있어 가속 요인으로 작용해줄 수 있어, ‘FC303’은 동사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

FC303 – Major Events and Timeline

Pipeline	Major Events	Timeline
FC303 (Korea)	식약처 MFDS 허가 승인	허가 승인: 2026년 04월
FC303 (China)	임상 3상 종료 및 허가 승인 및 런칭	3상 종료: 2026년 2H 허가 신청: 2027년 1H 허가 승인: 2027년 2H
FC303 (Global)	임상 3상 종료 및 허가 승인	유럽 3상 종료 및 허가 승인: 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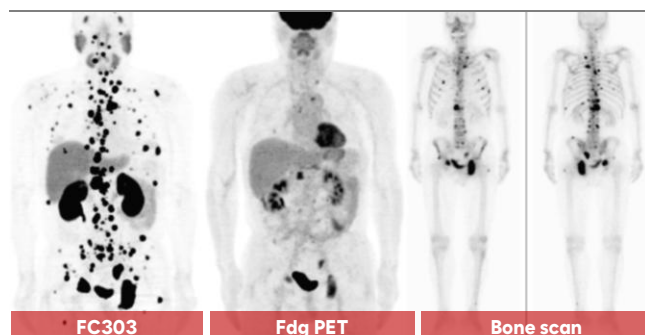
자료: 퓨처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FC303 License Out 계약 현황

품목	계약상대방	대상지역	계약체결일	계약종료일	총 계약금액	수취금액	진행단계
전립선암 진단 방사성 의약품 (FC303)	IASON GmbH	오스트리아	2020.05.04	품목허가 승인 5년 + 상업적 판매기간 15년	• 선급금 및 마일스톤: EUR 1,220,000 • 경상기술료: 순매출액의 20% • 수익배분: 제3자 기술이전 합의된 비율에 따라 추가 수령	EUR 150,000	-
	HTA CO., LTD.	중국, 홍콩, 마카오	2020.09.01	품목허가 승인 5년 + 상업적 판매기간 15년	• 선급금 및 마일스톤: USD 2,000,000 • 경상기술료 1년~3년차는 Net Sales의 12%, 4년~15년차는 Net Sales의 16% • 수익배분: 제3자 기술이전 시 합의된 비율에 따라 상기 마일스톤과 별도로 추가 수령	USD 1,300,000	-
	Moltek	터키	2021.12.06	품목 출시일로부터 20년	• 선급금 및 마일스톤: USD 250,000 • 경상기술료: 순매출액의 9%~12% • 수익배분: 제3자 기술이전 시 합의된 비율에 따라	USD 85,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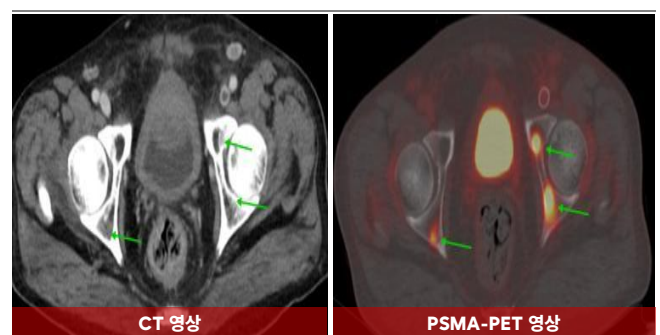
자료: 퓨처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FC303 기존 진단 방법과 비교 자료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T vs PSMA-PET 비교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FC705’(루도타다이펩)는
국내 최초 방사성 항암제로 개발
중인 PSMA 표적 치료제 후보로,
국내외 임상에서 고무적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국내 조건부
허가를 목표 중**

2. 전립선암 치료용 신약 파이프라인 - FC705(Ludotadipep)

‘FC705’(루도타다이펩)은 퓨처켄이 개발 중인 전립선암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후보로, 루테튬-177(Lu-177) 동위원소를 PSMA 표적 펩타이드에 결합한 표적 방사성 치료제(Radioligand Therapy)이다. PSMA는 전립선암 세포 표면에 과발현되는 단백질로, ‘FC705’는 해당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방사선을 직접 암세포 내부에 전달한다. 이러한 작용 기전은 기존 화학항암제나 호르몬치료 대비 정상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가진다.

국내 임상 2상에서 ‘FC705’는 **객관적 반응률(ORR) 60%**, 질병통제율(DCR) 93.3%라는 고무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당사는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FC705’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일부 자료 제출이 면제되고, 신속 심사 절차 적용이 가능해졌다. 현재 회사는 국내 임상 3상 진입을 준비 중이며, 2025년 4Q 조건부 허가(Conditional Approval) 신청을 하여 2026년 상반기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 개발 또한 병행 추진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2022년부터 임상 2a상이 시작되어, 2026년 2분기까지 CSR(Clinical Study Report) 수령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FC705’는 **국내에서 개발한 최초의 방사성 항암제**로 상용화되는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FC705’는 동사의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FC303’와 함께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 전략의 양축을 이룰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 ‘FC303’을 통해 환자의 전립선암 병변을 정밀하게 진단 및 선별하고, ‘FC705’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구조는 글로벌 선도기업인 Novartis(스위스) ‘Pluvicto’(치료제)와 ‘Locametz’(진단제)로 구축한 사업모델과 유사하다. 이러한 통합 전략은 환자 맞춤형 정밀의학의 실현하는 동시에, 진단제와 치료제를 동시에 보유한 기업만이 확보할 수 있는 **독점적 시장 지위**를 창출할 수 있게 해준다. 향후 ‘FC705’의 성공적 상업화 여부는 동사의 **국내 방사성의약품 선도기업**을 넘어, 글로벌 항암 신약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기에 동사의 주요 사업의 한 축으로 볼 수 있다.

FC705 – Major Events and Timeline

Pipeline	Major Events	Timeline
FC705 (Korea)	식약처 MFDS 조건부 허가 신청	조건부 신청: 2025년 4Q
	식약처 MFDS 정식 허가 신청	조건부 승인: 2026년 1H
		정식 허가 신청: 2027년 3Q
FC303 (Global)	미국 임상 2a상 CSR 수령	2a상 CSR: 2026년 1H

자료: 퓨처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파킨슨병 진단제 ‘피디뷰’와
알츠하이머 진단제 ‘알자뷰’를
중심으로 국내 PET 진단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생산 및 공급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안정적인 매출 기반과
향후 신약 상업화 전환 역량을
동시에 확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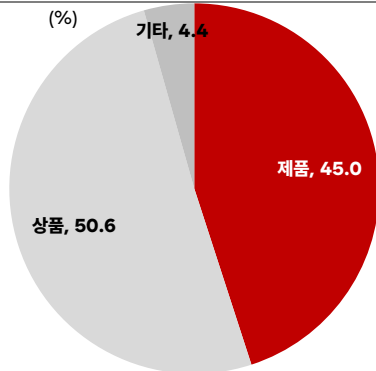
3.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사업(2024년 별도 매출 비중: 67.6%)

퓨처켄은 창립 초기부터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한 분자영상 진단의약품 개발에 집중해왔으며, 현재 뇌신경질환 및 암 영역을 중심으로 상용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파킨슨병 진단제 ‘피디뷰’([¹⁸F]FP-CIT)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제 ‘알자뷰’([¹⁸F]Florapronol)가 있으며, 이들 제품은 국내 PET 진단 시장에서 입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알자뷰’는 2018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한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으로, 같은 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판매를 개시하였다. ‘알자뷰’는 기존 경쟁 제품 대비 제조 효율성과 비용 경쟁력에서 강점을 갖추었으며, 부산 지역 주요 병원부터 공급을 시작해 점차 시장을 확대하였다. 특히 ‘알자뷰’는 2018년 터키 Moltek[튀르키예] 사에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외 진출에도 성공하며 판매금액의 50%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매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피디뷰’는 2014년 말경으로부터 국내 시장에 출시된 파킨슨병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으로, 국내 최초이자 세계 두 번째로 허가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도파민 신경세포의 기능 저하를 영상화함으로써 파킨슨병 조기진단과 유사질환과의 감별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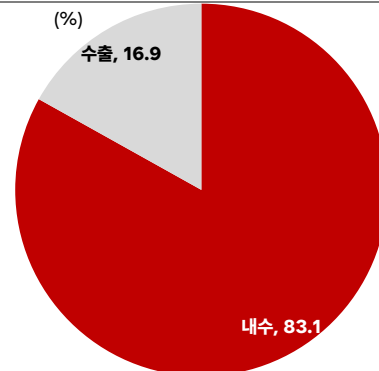
방사성의약품 사업의 특성상 원료의 반감기가 짧아 **제조 및 물류 인프라** 확보가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동사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현재 국내 권역별 생산 거점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피디뷰’ 및 ‘알자뷰’ 등 주요 제품을 전국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프라는 단순히 현행 매출 창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신약 파이프라인 상용화 시 신속한 상업 생산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큰 동사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

별도 기준 매출 Breakdown (2024년 기준)



자료: 퓨처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별도 기준 내수/수출 매출 비중 (2024년 기준)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 종속 기업 및 주주구성

1. 종속 기업

동사의 종속 기업은 퓨처켄헬스케어(98.21%), 미국법인인 FutureChem U.S.A.(89.74%) 등이 있다. 또한 종속기업인 퓨처켄헬스케어가 에스아이헬스케어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퓨처켄은 종속 기업인 퓨처켄헬스케어와 방사성 의약품 전공정 위탁 제조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제조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의 52.6%를 차지하는 '방사성 의약품', '전구체, 시약 및 기타', 'sCUBE'의 '상품 매출'은 퓨처켄헬스케어에서 생산된다. 이는 각 사의 생산 CAPA에 따른 분배 목적으로, 품질 등은 균등하다.

에스아이헬스케어는 방사성 PET 의료기기들을 유통하는 회사로, 퓨처켄헬스케어가 지분 100.00%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퓨처켄 및 퓨처켄헬스케어 내 생산 공장 시설 유지보수 또한 담당한다. 퓨처켄은 종속회사인 퓨처켄헬스케어와 에스아이헬스케어를 통해 전략적으로 방사성 의약품 생산 및 관련 의료기기 유통 및 유지보수를 내재화하고 있다.

종속 기업 (2025.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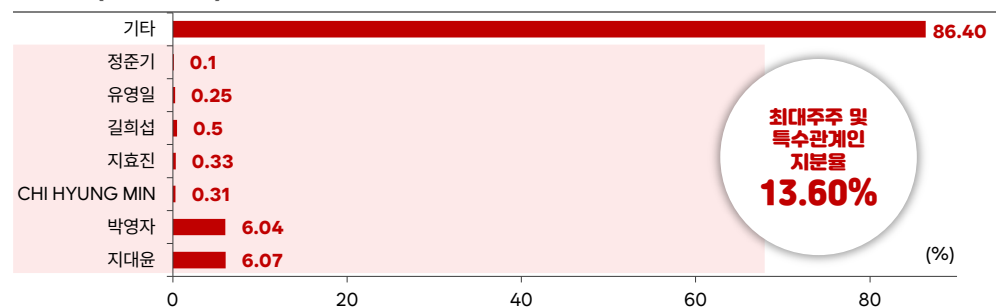
자료: 퓨처켄,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주주 구성

2025년 6월 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지대운 대표이사로, 보통주 1,342,290주(지분율 6.07%)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및 임원 지분을 포함할 경우 총 3,006,474주로 확대되며, 이는 전체 보통주의 약 13.6%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는 박영자(6.04%), Chi Hyung Min(0.31%), 지효진(0.33%)이 포함되며, 등기임원으로는 길희섭(0.50%), 유영일(0.25%) 등이 있다. 한편, 우리사주조합은 별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주주 구성 (2025.06.30)



자료: 퓨처켄,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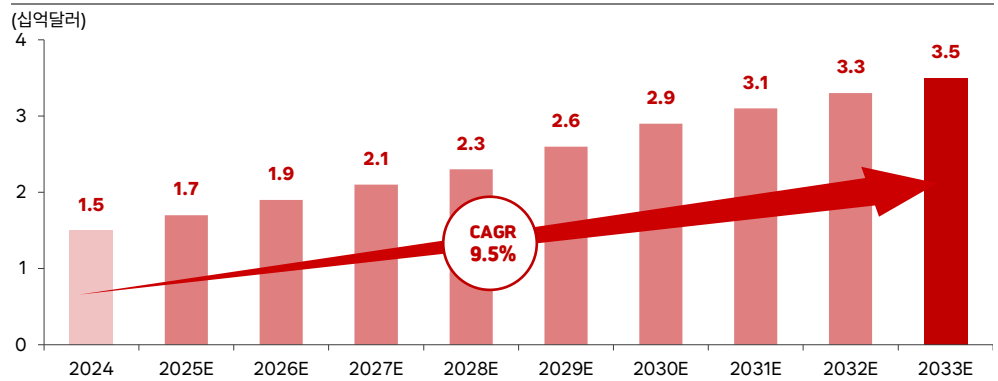
1 전립선암 방사성의약품 산업

전립선암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고령화와 정밀진단 수요 증가로
급성장 중이며, PSMA 표적 진단
및 치료제의 확산과 함께
테라노스틱스 기술이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고성장 산업

전립선암은 남성에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암 중 하나로, 특히 고령화와 진단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환자 수와 의료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암학회 ACS(American Cancer Society)에 따르면 2025년 미국 내 신규 암 진단 건수는 약 204만 건으로 예상되며, 이 중 전립선암은 남성 암 발생 1위, 사망 원인 2위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도 전립선암 환자 수는 2019년 대비 2023년 약 40% 증가하였으며, 총 진료비 증가율은 60%로 주요 암종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고령화 사회 진입과 더불어 전립선암 진단 수요의 구조적 확대를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의 PSA(전립선특이항원) 검사, 직장수지검사(DRE, Digital Rectal Examination), MRI 및 CT 영상 진단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낮고, 미세 전이나 재발 병소 탐지에 한계가 있다. 특히 PSA 검사는 혈중 농도 변동성이 크며, 양성질환에서도 수치가 상승할 수 있어 암의 존재나 병기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확하고 비침습적인 전신 분자영상 기반 진단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의료적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대안으로 PSMA를 표적하는 방사성의약품이 새로운 글로벌 표준으로 부상했다.

PSMA는 전립선 상피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막 단백질로, 전립선암 세포에서 과발현되는 특성이 있다. 이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방사성 표적 물질을 이용하면 종양의 위치와 범위를 고해상도로 영상화할 수 있다. 기존의 18F-FDG(FluoroDeoxyGlucose) 기반 PET 영상은 전립선암 세포에서 포도당 대사가 상대적으로 낮아 영상 대비가 떨어지는 반면, PSMA 기반 PET 영상은 종양 특이 결합을 통해 훨씬 높은 해상도와 특이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기술의 상용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2021년 Lantheus(미국)의 'Pylarify'(piflufolastat F-18), Telix(호주)의 '11lucix'(Ga-68 PSMA-11), Novartis(스위스)의 'Locametz'(Ga-68 gozetotide) 등이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허가를 획득하면서 PSMA PET 진단 시장이 급성장했다. 'Pylarify'는 2024년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최초의 블록버스터급 방사성 진단제로 자리 잡았고, Ga-68(갈륨-68) 계열은 병원 내 신속 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빠른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Verified Market Reports에 따르면 글로벌 PSMA PET 진단 시장은 2024년 약 15억 달러에서 2033년 35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9.5%로 추정된다. 이러한 성장세는 단순 진단 시장 확장을 넘어, PSMA PET이 전립선암 치료제 투여 전 환자 선별과 치료 반응 평가에 필수적인 도구로 정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고위험 및 재발성 전립선암 환자 대부분이 치료 결정 전 PSMA PET 검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병기 설정 및 치료 전략 수립 과정에서의 임상적 유용성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

PSMA PET 진단 시장 규모 추이



자료: VMR,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에서도 전립선암 방사성 진단제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듀켄바이오의 '프로스타시크'와 퓨처켄의 'FC303'은 국내 PSMA 진단제 후보군에서 주목받는 제품군이다. 2023년 식약처가 'Pluvicto'를 승인하면서 치료제 영역은 개화하기 시작했지만, PSMA PET 진단제는 아직 정식 상용 제품이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게 될 것이 듀켄바이오의 '18F-rhPSMA7.3(프로스타시크)'다. 듀켄바이오는 2023년 12월 Blue Earth Diagnostics(영국)와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 7월 식약처 품목 허가를 획득하며 하반기 10월부터 국내 최초의 PSMA PET 진단제 상업화를 앞두고 있다. 퓨처켄 또한 'FC303'은 PSMA 리간드에 양전자 방출 동위원소 Fluorine-18을 표지한 PET 영상제로, 기존 CT/MRI 진단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개발되어 현재 국내 임상 3상을 완료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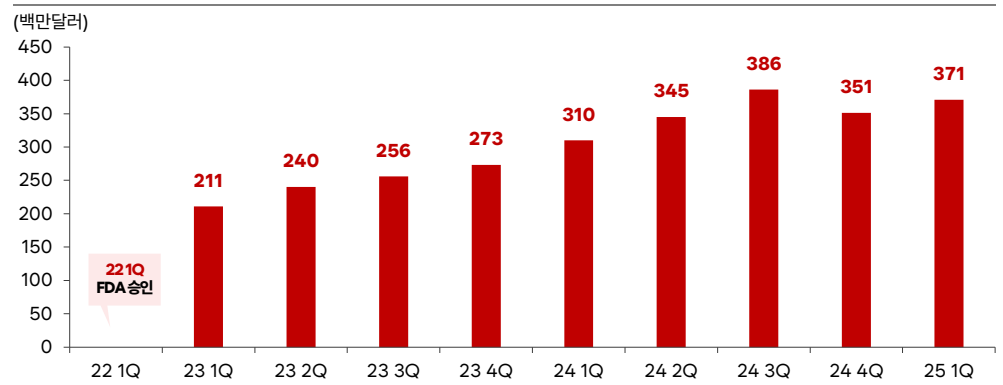
치료 영역에서는 방사성 리간드 치료(RadioLigand Therapy, RLT)가 전립선암 치료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대표 약물인 Novartis의 'Pluvicto'는 2022년 FDA 승인을 획득하며 기존 항암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Metastatic Castration-Resistant Prostate Cancer) 환자의 생존율을 유의하게 개선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후 'Pluvicto'는 화학요법 이전 단계로 적응증을 점차 확대해왔으며, FDA는 2024년 조기 치료선 사용을 추가 승인함으로써 치료 패러다임 변화 속도를 높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내에서도 'Pluvicto'가 허가를 획득한 바 있으며, 국내 기업 퓨처켄에서 개발 중인 방사성 치료 후보 중 하나인 'FC705'는 PSMA 리간드에 치료 핵종을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국내 치료제 시장의 잠재 축으로 평가된다. 향후 'FC705'가 상용화된다면 진단과 치료가 완전히 국내 기술 주도로 순환되는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질 수 있기도 하다.

전립선암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진단과 치료가 상호보완적으로 성장하며, 특히 진단제와 치료제를 연결하는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 모델이 새로운 사업 구조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구조에서는 먼저 PSMA PET 진단을 통해 환자를 적합군으로 선별하고, 이후 방사성 치료제를 투여한 후 동일 영상 기반으로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처럼 "진단 → 치료 →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수요는 환자당 수익성(ARPU, Average Revenue Per User)을 극대화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예컨대 'Pluvicto'를 투여받는 환자의 대부분은 사전에 'Pylarify'나 'Locametz'를 통해 PSMA 발현 여부를 확인받으며, 투여 후에도 동일 영상으로 효과를 평가하고 추적한다. 이러한 통합형 사업 구조는 의료비 효율성과 치료 정확도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

규제와 보험 보상 환경 역시 시장 확대의 중요한 변수인데, 미국은 PSMA PET 진단과 'Pluvicto' 치료 모두 Medicare

및 민간보험의 보상 체계를 확보한 상태이며, 2025년부터 CMS가 고가 방사성의약품을 별도 청구 가능한 보상체계로 분류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병원 도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은 'Pluvicto'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상태이나 건강보험 급여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고, 국내 PSMA 진단제 역시 출시에 이어 급여 등재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최근 방사성의약품을 첨단 혁신 의료기술로 지정하고 급여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국내 생산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도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히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제도권 내로 정착되면,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립선암 방사성의약품 분야에서 독자 생태계를 구축할 여지가 커질 수 있는 산업이다.

Pluvicto(Novartis) 전립선암 치료제 출시 후 매출 추이



자료: 퓨처켄,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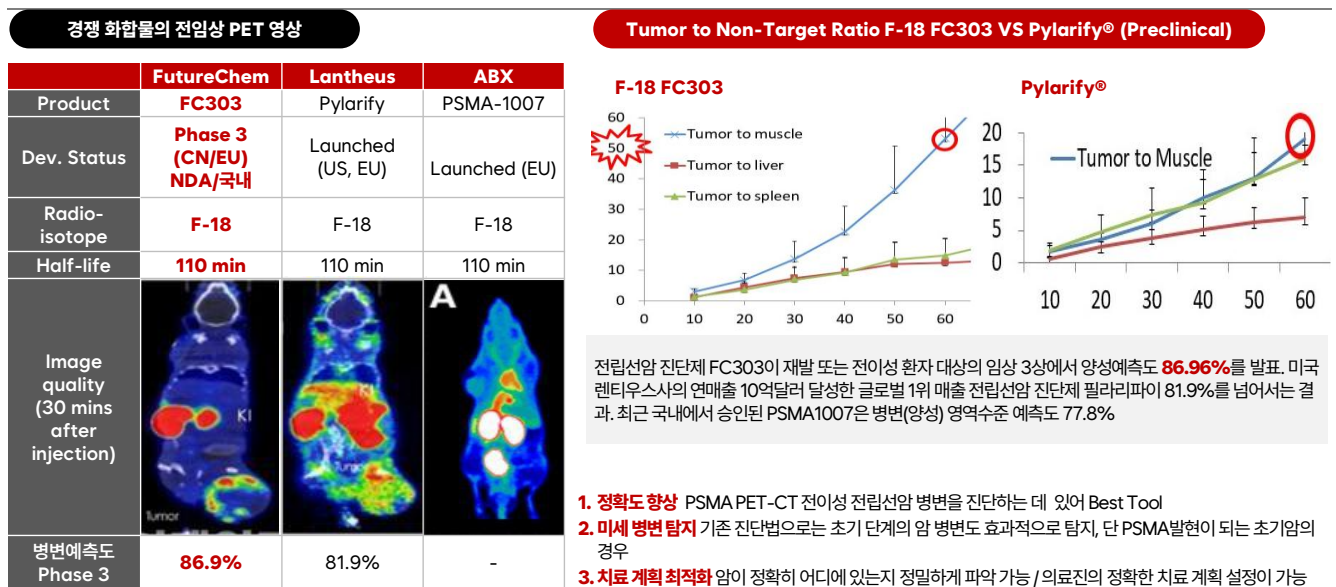
투자포인트

1 FC303 – 전립선암 테라노스틱스 진단 허브로의 진화

‘FC303’은 PSMA 표적 기반 F-18 PET 진단제로, 기존 영상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세 전이 병변을 정밀 탐지함. 진단 정확도(양성예측도 86%)는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보였고, 치료제 ‘FC705’와 연계된 테라노스틱스 핵심 자산으로 평가

퓨처켄의 ‘FC303’은 기존의 [18F]FDG-PET이나 MRI 영상 기법이 미세 전이 병변을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보완해주고, PSMA 표적 결합을 통해 전이성 및 재발성 병변을 고해상도로 시각화할 수 있어, 전립선암 병기 설정의 정확도 향상과 치료 전략 수립에 있어 임상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미국 전임상에서도 기존 진단법 대비 높은 진단 민감도와 특이도를 입증하였으며, FDA 승인 약물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여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비록 Head-to-Head 직접 비교 임상상은 아니었지만, ‘FC303’은 Lantheus의 ‘Pylarify’ 대비 양성 예측도(PPV, Positive Predictive Value)에서 86.96% 대 81.9%로 약 5%p 높은 수치를 보여, 데이터 수치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F-18 계열 방사성의약품 중에서도 Best-in-Class 수준의 민감도를 기록하며 우수한 진단 성능을 입증했다.

전립선암 방사성 진단의약품 – FC303



자료: 퓨처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FC303’은 2026년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중국에서의 허가 승인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 국영 제약사 HTA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 중인 현지 임상 3상은 2026년 하반기 완료가 예상되며, 중국 내 허가 신청은 2027년 1분기로 전망된다. HTA는 중국 내 방사성의약품 생산과 유통 인프라와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 초기 시장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동사는 글로벌 상용화 전략에서 조기 진입과 현지 확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FC303’의 의미는 단순한 진단제 출시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전립선암 치료 패러다임은 호르몬치료를 화학요법 중심에서 PSMA 표적 치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단제와 치료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테라

노스틱스(theranostics)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FC303'은 향후 동사가 병행 개발 중인 치료제 'FC705'의 PSMA 양성 환자 선별, 치료 반응 평가, 재발 모니터링에 필수적인 진단 도구로 기능할 전망이다. 이는 Novartis의 'Pluvicto'(치료제)-'Locametz'(진단제) 조합과 유사한 모델로, 동사가 **국내 최초의 전립선암 테라노스틱스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이러한 진단-치료-모니터링의 통합 구조는 환자 단위 수익(ARPU)을 확대하고, 전립선암 전체 치료 사이클 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구조적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FC303'은 동사의 성장 전략에서 단순한 진단 제품이 아닌, 전립선암 치료 생태계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높은 진단 정확도와 상업화 준비도, 글로벌 임상 확장성, 그리고 'FC705'와의 연계에 따른 테라노스틱스 구조적 시너지까지 고려할 때, 'FC303'의 국내외 허가 승인은 향후 동사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Valuation Re-rating)을 견인할 주요 모멘텀으로 평가된다.

차세대 방사성 치료제, FC705의 잠재력

'FC705'는 전립선암 치료제 'Pluvicto' 대비 절반 용량으로도 높은 치료 효과(ORR 60%, DCR 93.3%, PSA-PFS 7.6개월)를 입증한 차세대 방사성 치료제로, PSMA-PET 평가 기준에서 긍정적 결과를 보였으며, 용량 효율성과 안전성 면에서도 상업화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

퓨처켄의 'FC705'([¹⁷⁷Lu]Ludotadipep)는 전립선암 방사성 치료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국내 대표 신약으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상에서 탁월한 항암 효과를 보여주었다. 한 사이클당 투약량(100 mCi, millicurie) 기준 객관적 반응률(**ORR, Objective Response Rate**)은 **60%**, **질병통제율(DCR, Disease Control Rate)**은 **93.3%**, **PSA 50 반응률은 73%**, **PSA 기반 무진행생존기간(PSA-PFS)**은 **7.6개월**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표준 치료제인 노바티스의 'Pluvicto'(ORR 29.8%, PSA-PFS 5.8개월, 200 mCi per cycle) 대비 효능 우위성에 있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절반 용량으로도 동등 이상의 치료 반응을 유도했다는 점은 'FC705'가 **용량 효율성과 상업화 경쟁력** 측면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 2025년 9월 중순경 'FC705' 국내 임상2상 결과 관련 이슈가 발생했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암 임상시험에서 종양 반응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RECIST 1.1(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s)이다. 이는 종양의 크기 변화나 새로운 병변의 출현 여부를 바탕으로 완전반응(CR, Complete Response), 부분반응(PR, Partial Response), 안정병변(SD, Stable Disease), 진행(PD, Progressive Disease)을 판정하는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나 전립선암, 특히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은 골 전이(bone metastasis) 발생 빈도가 높아 단순한 크기 측정만으로는 반응 여부를 명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PCWG(Prostate Cancer Working Group)이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해왔으며, 현재는 PCWG3 권고안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PCWG3는 연조직 병변은 기존 RECIST 1.1 규칙을 적용하되, 골 병변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예컨대 새로운 골 병변의 출현, 병변 수의 변화, 치료 초기 골전환(flare) 현상 등을 예외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PCWG3 modified RECIST v1.1은 연조직은 RECIST 1.1 기준을, 골 병변은 PCWG3 규칙을 적용하여 전립선암 특성을 반영한 수정 평가 체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사도 'FC705'의 2상 데이터를 "PCWG3 modified RECIST v1.1" 기준으로 거래소 요청에 따라 재분석한 결과값을 정정 공시했으며, 그 결과 **ORR이 14.3%로 조정**되었다. 이는 효능 저하를 의미한다기 보단, 평가 가능 환자 수의 감소에 따른 통계적 산출치 변화 때문인데, 실제로 전체 14명 중 8명(57.1%)은 골 전이만 존재하고 연조직 병변이 없어 RECIST상 **"측정 가능한 병변(measurable lesion)"**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평가불가(NE, Not**

Evaluable)로 분류되었다. 즉, 분석 모수가 줄어든 결과 ORR이 낮게 산출된 것이다. 반면, 동일 환자군을 PSMA-PET 영상 기반으로 평가할 경우 골 병변까지 포함되어 ORR은 60%로 산출된다. 동사는 환자 특성상 대부분이 골전이 중심의 질병 양상을 보였으며, CT 기반에서는 보이지 않던 병변이 PSMA-PET 영상에서는 명확히 확인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했고, 따라서 PSMA-PET 평가가 전립선암 치료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평가 기준의 차이(PCWG3 modified RECIST vs. PSMA-PET)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 치료 효능이 부정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PSMA-PET 기반 평가에서는 기존 글로벌 약물 대비 동등 이상의 유효성을 보였으며, PSA-PFS와 같은 생존 지표에서도 'Pluvicto'를 상회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또한 신약 허가의 핵심 지표는 ORR보다 방사선학적 무진행생존기간(rPFS, Radiographic PFS)과 전체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이며, 'FC705'는 이 두 항목에서 모두 긍정적 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동사는 향후 3상 임상에서 PCWG3 modified RECIST와 PSMA-PET 기반 평가를 병행 적용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접근은 전립선암의 임상적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글로벌 허가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 외로 'FC705'는 경쟁약 'Pluvicto' 대비 절반 수준의 투여 용량(100 mCi vs. 200 mCi)과 더 긴 투여 간격(8주 vs. 6주)으로도 동등 이상의 효과를 보였으며, Grade 3 이상 부작용률은 25%로 'Pluvicto'의 52.7%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의 방사선 노출 감소, 치료 편의성 향상, 이상반응 부담 경감 측면에서 우월한 프로파일을 보여준다. 실제로 'Pluvicto'가 고용량 루테튬 기반 치료에서 나타나는 혈액독성, 피로, 메스꺼움 등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FC705'는 내약성(tolerability) 측면에서도 개선된 균형을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관리 용이한 치료 옵션으로 여필할 수 있으며, 향후 3상에서도 동일한 프로파일이 유지될 경우 시장 내 차별화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동사는 2025년 하반기 국내 3상 IND 승인 → 2026년 조건부 허가 → 2027년 정식 허가를 목표로 임상을 진행 중이며, 동시에 미국에서도 임상 2a를 수행 중이다. 미국 임상 CSR는 2026년 2분기쯤에 수령할 예정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내포한다면 이후 글로벌 빅파마 대상 L/O 논의의 근거 자료는 물론 최근 발생한 국내2상 결과에 대한 논쟁을 종결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FC705'는 차세대 방사성 치료제로 용량 효율성, 내약성, 생존지표 모두에서 경쟁약과 견주어 불만하며, 초기 치료 라인(1차 치료제) 확장 및 병용요법 연구로 적응증 확대 가능성도 존재한다. 향후 허가 승인과 글로벌 L/O가 가시화될 경우, 'FC705'는 동사의 기업가치를 단계적으로 상향시킬 핵심 성장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립선암 방사성 치료 의약품 임상 결과 비교 분석표

	Pluvicto® (VISION Trial)	PNT2002 (SPLASH Trial)	Lu-177 FC705 (LUCIDA Trial)
Developer	Novartis	POINT Biopharma (Eli Lilly)	FutureChem
Approval / Status	FDA approved (Mar 2022)	Phase 3 on-going	Phase 2 completed
Launch Date	2022	Expected 2025-2026	Expected 2028 in the KR market
Global Sales (2024)	~\$1.39B	개발 중단	-
Dose per Cycle	200 mCi	200 mCi	100 mCi
Cycle Frequency	Every 6 weeks × 6 cycles	Every 8 weeks × 4 cycles	Every 8 weeks × 6 cycles
Comparator Arm	SOC (ARPI* ± chemo)	SOC (ARPI* switch)	Single-arm (no comparator)
PSA50 Response Rate	46.0%	36.0%	73.3%
ORR	29.8%(PCWG RECIST1.1)	38.1%(PCWG RECIST1.1)	60.0% (PSMA-PET)
DCR	89.7%	90.0%	93.3%
Serious ADR	9.3%	N/A	10.0%

자료: 퓨처켄,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4년 실적 리뷰

방사성 진단의약품 매출 확대에
힘입어 창사 이래 최대
매출(173억 원)을 기록했으나,
연구개발비와 고정비 부담으로
영업손실 95억 원을 시현하며
매출 성장과 적자 지속이 병존한
과도기적 해

퓨처켄은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 173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24% 성장하였다. 이는 국내외 병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방사성 진단의약품(알자뷰&피디뷰 등)의 공급 확대와 신규 거래처 확보에 따른 결과로, 회사 창립 이래 최대 연간 매출을 달성했다. 특히 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매출 기반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영업손실은 95억 원, 지배주주 당기순손실은 94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되었는데, 이는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정비 부담과 연구개발비 증가가 수익성을 제약한 결과다. 특히 당사는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FC303'과 치료제 'FC705'의 임상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인력 총원 및 임상시험비, 원자재비 등 R&D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판관비가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하며 영업적자 폭이 조금 더 확대되었다.

궁극적으로 2024년은 매출 성장세와 적자 지속이 공존한 과도기적 해로 평가되는데, 본업인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판매 부문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향후 1~2년 내 상업화 전환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25년 실적 전망

2025년은 기존 방사성의약품
사업의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가며
수익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과 허가
준비가 병행되는 과도기적 해

퓨처켄은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 87억 원(+27% YoY)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중 2분기 매출만 놓고 보면 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34억 원 대비 6% 상승했다. 손익 구조에서도 개선 흐름이 관찰되었는데, 상반기 전체의 영업손실은 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8억 원 대비 약 20% 축소되었다. 특히 2분기에는 영업손실이 19억 원 수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27억 원) 대비 약 29%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이 같은 개선은 방사성의약품 판매 확대와 연결 자회사 수익성 개선이 맞물린 결과로 핵심 품목인 FDG, FP-CIT 등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의 수요 증가가 매출 성장의 주축이 되었고, 자회사 실적 개선도 기여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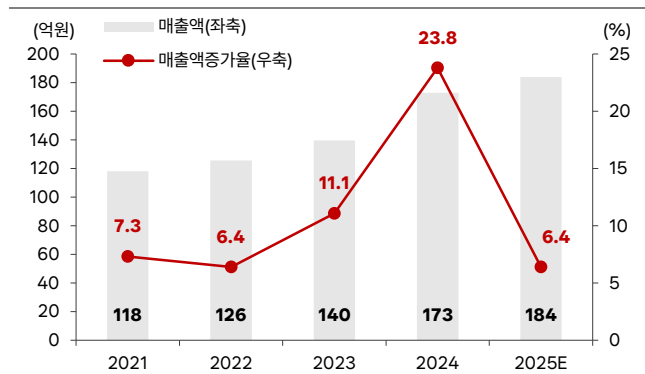
이러한 상반기 기조에 따라 2025년 당사는 기존 방사성의약품 사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보수적으로 약 184억 원(+6.4% YoY) 수준의 매출이 전망되며, 기존 판매 중인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의 안정적인 병원 공급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거래처 확대와 의료기관 내 PET 수요 증가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주요 파이프라인인 'FC303'과 'FC705'는 2025년 중 허가 준비 및 임상3상 단계에 머물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매출 기여는 2026~2027년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구조적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는데, 2025년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약 40%가량 감소함에 따라 판관비 1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며 영업손실 88억 원(적자폭 감소)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감소하기는 하나,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 3상 진입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계속 반영되며, 판관비 중 R&D 비중이 50% 이상으로는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이번 2분기에 전환사채의 공정가치 조정으로 인해 일회

성 금융수익 39억원이 인식되면서 지배주주 당기순손실은 42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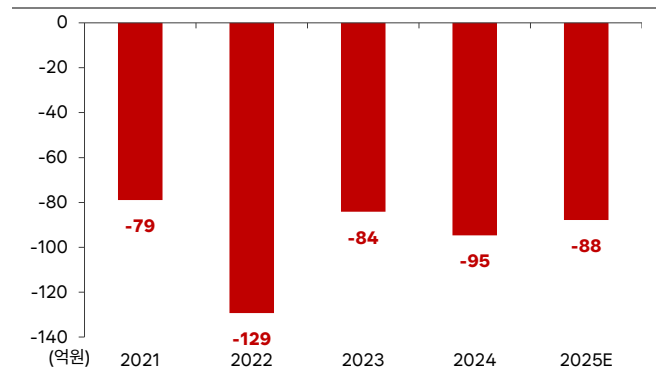
정리해보면 2025년은 동사가 'FC303'의 국내 품목허가 신청 및 'FC705'의 국내 조건부 허가 신청 및 글로벌 임상 진전으로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과도기적 시기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는 **2026년 상반기 이후 신제품 매출 반영 구간**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 추이 (연결 기준)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영업이익 추이 (연결 기준)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126	140	173	184
증가율 (%)	6.4	11.1	23.8	6.4
퓨처켄	69.2	75.0	83.2	85
제품	38.2	37.3	37.4	36
상품	26.2	32.5	42.1	45
기타	4.8	5.1	3.7	4
퓨처켄헬스케어	60.5	66.7	67.3	69
에스아이헬스케어	29.1	31.2	59.4	68
FutureChem USA	0.02	0.1	0.1	0.1
매출원가	109	124	143	152
매출원가율 (%)	86.5	88.6	82.7	82.6
영업이익	-129	-84	-95	-88
영업이익률 (%)	-102.9	-60.2	-54.7	-47.7
증가율 (%)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세전계속사업이익	-140	-67	-94	-42
증가율 (%)	적지	적지	적지	적지
당기순이익	-140	-67	-94	-42
순이익률 (%)	-111.4	-48.1	-54.5	-23.0
증가율 (%)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40	-67	-94	-42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2025년 예상 PBR 8.4배,
PSR 22.9배로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평균을 소폭 상회하나,
'FC303' 및 'FC705'의 가치가
아직 본격 반영되기 전 수준의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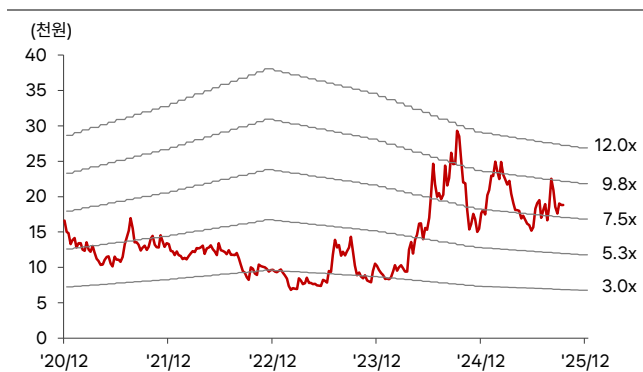
퓨처켄의 2025년 연결 기준 예상 실적을 반영한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PBR 8.4배, PSR 22.9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순이익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PER은 산정하지 않았으며, 상대가치 평가는 PBR과 PSR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동사의 최근 5년간 멀티플 밴드는 PBR 2.1x~12.2x, PSR 10.1x~41.4x 범위에서 형성되어 왔다. 상장 이후 평균치는 각각 PBR 5.8배, PSR 21.8배 수준으로, 2025년 예상 멀티플은 5년간 역사적 밴드 평균치 대비 살짝 높은 구간에 위치하지만, 고평가로 보긴 어렵다. 이는 여전히 핵심 파이프라인인 'FC303'(진단제) 및 'FC705'(치료제)의 임상 결과나 상업화 일정의 본격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사는 국내에서 PSMA(전립선특이막항원)를 표적으로 한 전립선암 진단제와 치료제를 동시에 자체 개발 중인 기업으로, 국내 경쟁사 대비 높은 임상 진행 속도와 기술 자립도를 확보하고 있다. 진단제 'FC303'은 2026년 상반기 국내 식약처 허가가 예상되며, 중국에서는 2026년 하반기 임상 3상 결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료제 'FC705'는 2026년 국내 조건부 허가 승인 및 미국 2a상 CSR 보고서 수령 가능성이 있어, 동사의 파이프라인이 본격적인 **상업화 및 임상 결과에 따른 신약 가치 반영 국면에 진입하는 시점은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5년 현재의 밸류에이션은 두 파이프라인의 **임상 성과를 아직까지는 선제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기술력과 임상 진척도에 대한 기대치를 기반한 대기하고 있는 구조**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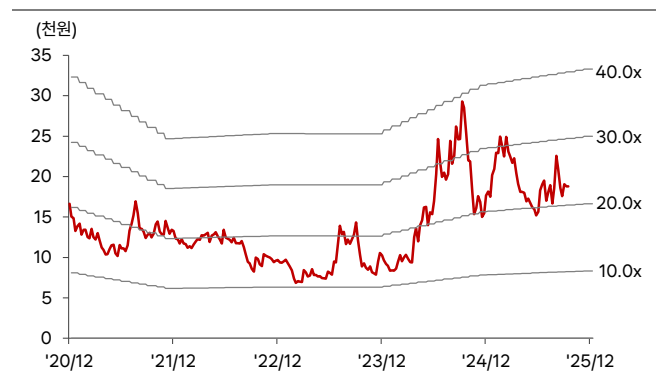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동사의 향후 'FC303' & 'FC705'의 허가 승인 및 임상 결과에 따라 밸류에이션이 **본격적인 리레이팅(Re-rating)**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큰 것은 투명하게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는 'FC705'의 국내 임상 3상 결과에 따라 L/O 계약 및 허가 일정 등 가시적 모멘텀이 확인될 때마다 멀티플 확장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히 보인다.

퓨처켄 PBR 밴드 차트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퓨처켄 PSR 밴드 차트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리스크 요인

**PSMA 기반 진단&치료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으로
성장성이 높지만, 경쟁사 대비
후발주자로서 상업화 시점 지연과
낮은 지배지분에 따른 경영권
안정성 리스크를 보유. 다만
진단&치료 통합 테라노스틱스
기술 기반과 임상 진전 가시화로
중장기 업사이드 기대됨**

퓨처켄은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으로, 진단 및 치료 분야를 아우르는 독자적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며 성장 잠재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 관점에서 향후 사업 전개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존재한다. 이는 동사의 중장기 성장성을 부정하기보다는, 사업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으로 보고자 한다.

첫째, 주요 파이프라인의 상업화 시점 리스크다.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FC303'은 기술력과 임상 경쟁력을 확보했으나, 시장 진입 시점에서 경쟁사 대비 후발주자로 분류된다. 국내 경쟁사 듀켄바이오는 Blue Earth Diagnostics로부터 도입한 '프로스타시크'를 통해 2025년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하며 하반기부터 시장 선점이 예상되고 있는 반면, 퓨처켄의 'FC303'은 2026년 상반기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사 제품 모두 PSMA 타겟을 기반으로 하는데, 물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동사의 'FC303'은 자체 개발한 파이프라인이기에 유리할 수 있으나, 영상 품질 및 병원 접근성 등 실질적 차별화 우위성은 아직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후발 제품으로서 'FC303'이 허가 승인 및 시장 도입 과정에서 확실한 경쟁우위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상업화 성공의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다.

둘째,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경영권 안정성 리스크도 주목해볼 필요는 있다. 2025년 6월 말 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약 13.6%에 불과해, 경영권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가총액 약 4,155억 원(10월 14일 종가 기준) 대비 보유 지분가치가 약 552억 원 수준에 머물러, 동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이 허가 및 임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외부 세력의 영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지분율은 향후 전략적 투자 유치, 글로벌 파트너십 협상, 기술이전(L/O) 계약 체결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확실성 또는 우위를 선점하는데 제한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에서 PSMA 기반 진단&치료 테라노스틱스 라인업을 확보한 기업으로, 경쟁사 대비 높은 기술 내재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GMP 인증 생산 인프라를 통한 안정적 수익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임상 진척이 가시화되는 2026년 이후에는 신약 가치의 밸류에이션 반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과 기술적 차별성을 모두 갖춘 구조적 업사이드가 기대되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118	126	140	173	184
증가율(%)	7.3	6.4	11.1	23.8	6.4
매출원가	93	109	124	143	152
매출원가율(%)	78.8	86.5	88.6	82.7	82.6
매출총이익	25	17	16	30	32
매출이익률(%)	21.1	13.6	11.2	17.5	17.5
판매관리비	104	146	100	125	120
판매비율(%)	88.1	115.9	71.4	72.3	65.2
EBITDA	-33	-83	-28	-33	-40
EBITDA 이익률(%)	-28.1	-66.2	-19.7	-19.3	-22.0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영업이익	-79	-129	-84	-95	-88
영업이익률(%)	-66.8	-102.9	-60.2	-54.7	-47.7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영업외손익	44	-11	17	1	45
금융수익	54	11	20	21	59
금융비용	14	23	5	11	15
기타영업외손익	5	1	2	-10	1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35	-140	-67	-94	-42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법인세비용	0	0	0	0	0
계속사업이익	-35	-140	-67	-94	-42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35	-140	-67	-94	-42
당기순이익률(%)	-29.3	-111.4	-48.1	-54.5	-23.0
증가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적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34	-140	-67	-94	-42

현금흐름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9	-76	-37	-32	4
당기순이익	-35	-140	-67	-94	-42
유형자산 상각비	44	44	55	60	46
무형자산 상각비	2	2	2	1	1
외환손익	0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4	3	-27	5	-1
기타	-36	15	0	-4	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3	-159	197	-115	-95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41	49	208	-117	-96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84	-30	-13	-1	-1
기타	-14	-178	2	3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7	232	-105	119	98
차입금의 증가(감소)	0	0	0	0	8
사채의증가(감소)	-0	-67	-92	65	60
자본의 증가	0	306	0	0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17	-7	-13	54	30
기타현금흐름	-0	-0	0	1	-3
현금의증가(감소)	-3	-3	54	-27	4
기초현금	38	35	32	86	60
기말현금	35	32	86	60	64

재무상태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유동자산	372	454	320	395	411
현금성자산	35	32	86	60	64
단기투자자산	294	379	176	282	291
매출채권	23	24	29	32	34
재고자산	11	12	14	13	14
기타유동자산	8	7	16	8	9
비유동자산	400	434	408	349	302
유형자산	339	331	326	257	211
무형자산	22	30	40	57	55
투자자산	3	33	1	1	1
기타비유동자산	36	40	41	34	35
자산총계	771	887	728	744	713
유동부채	103	138	36	158	167
단기차입금	0	0	0	0	0
매입채무	6	4	3	6	7
기타유동부채	97	134	33	152	160
비유동부채	140	47	53	41	43
사채	85	0	0	0	0
장기차입금	0	19	0	0	0
기타비유동부채	55	28	53	41	43
부채총계	242	184	89	199	210
자배주주지분	527	701	638	544	501
자본금	68	111	111	111	111
자본잉여금	937	1,206	1,206	1,207	1,207
자본조정 등	6	7	11	11	11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483	-623	-690	-784	-827
자본총계	529	703	639	545	503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F
P/E(배)	N/A	N/A	N/A	N/A	N/A
P/B(배)	4.9	3.0	3.7	7.1	8.4
P/S(배)	21.8	15.2	16.7	22.2	22.9
EV/EBITDA(배)	N/A	N/A	N/A	N/A	N/A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원)	-178	-703	-304	-424	-189
BPS(원)	2,728	3,173	2,885	2,429	2,239
SPS(원)	617	633	632	779	822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7.1	-22.7	-10.0	-15.9	-8.1
ROA	-4.3	-16.9	-8.3	-12.8	-5.8
ROIC	-24.4	-34.9	-22.0	-25.5	-27.1
안정성(%)					
유동비율	362.6	329.2	879.1	250.4	245.9
부채비율	45.8	26.2	14.0	36.5	41.7
순차입금비율	-27.1	-41.3	-35.2	-34.2	-37.9
이자보상배율	-6.0	-9.5	-17.6	-14.6	-8.1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1	0.2	0.2	0.2	0.3
매출채권회전율	4.9	5.3	5.3	5.7	5.6
재고자산회전율	11.1	11.2	11.0	12.9	13.6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퓨처켄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10.17	퓨처켄-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의 Father
2022.04.07	퓨처켄-한국의 방사성의약품 선도기업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